

2026학년도 모의논술

논술문제 해설지
언어형

논술문제 해설지 (언어형)

■ 2026학년도 모의논술 개요

2026학년도 모의논술(언어형)은 우리 대학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문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험생이 자신의 논리적 사고능력과 창의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 아래 3개의 문항을 배치하여 문해력과 분류요약 능력, 자료평가 및 사례활용과 비판 능력, 논술·논증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2026학년도 모의논술 역시 우리 대학의 이전 논술시험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를 핵심사항으로 고려하여 출제하였다. 또한 전년도 우리 대학의 논술고사와 일관되게, 수험생이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여 학습한 내용을 현실의 사회문제와 연결해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논술문제의 전체 주제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서의 기술낙관론 과 기술비관론’은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관련 내용이 <생활과 윤 리> 교과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에게는 익숙한 주제이다. 또한 이 문제는 전 지구적으로 중요한 쟁점이기도 하므로,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 이 친숙하게 느끼는 주제라고 판단하였다.

[문제 1]의 제시문은 유관분야 학자의 저서와 언론 기고문 등 다양한 자료 중에서 고등학교 교과 서의 내용과 수준에 부합하는 부분을 발췌하였으며, 문제 의도에 맞게 출제진이 수정하거나 통합하 여 구성하였다. 각 제시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제시문 1> 월드워치연구소, 『2012 지구환경보고서: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지속가능한 변형으로』, 박준식, 추선영 역, 도요새, 2012, pp. 48-51.

<제시문 2> 김석진, 신성수, 『주역으로 보는 도덕경』, 대학서림, 2005, pp. 120-124;
왕방웅, 『노자: 생명의 철학』, 천병돈 역, 작은이야기, 2007, pp. 30-31;
경향신문, 이창준 기자, 경향포럼 <“수십년 믿어온 녹색성장은 불가능”...탈성장을 모색하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306052103015>

<제시문 3> 그레타 툰베리, 옥스팜 보고서 『기후 평등: 99%를 위한 지구』, 2023년 11월

<제시문 4> <“기후변화, 이전 과학기술 혁신으로 대응한다”>, 경제정책해설 2023년 2월호

[문제 2]의 자료 역시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 자료를 활용하여 [문 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료를 통해 추론한 바를 [문제 1]의 두 입장과 논리적, 체계적으로 연결해 논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3]은 [문제 1]에 제시된 두 가지 입장을 주요 논지와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현 실의 구체적 쟁점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술문제 해설지 (언어형)

■ 평가항목과 문항별 배점

우리 대학의 논술시험은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 자료 이해와 비판 능력, 그리고 논술·논증 능력을 평가해 왔다. 대학 논술시험의 기본 취지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이러한 방향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 평가항목

- ① 문제해결이 잘 이루어졌는가, 즉 발문이 요구하는 답안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한가: 50%
- ② 논리 전개와 구성이 잘 이루어졌는가: 20%
- ③ 표현력 및 어법: 15%
- ④ 답안의 창의성: 15%

※ 답안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위의 항목 ②, ③, ④의 비중은 답안의 형식,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문항별 배점

- [문제 1] : 40점
- [문제 2] : 40점
- [문제 3] : 20점

○ 채점등급별 점수

[문제 1], [문제 2]

- ① A 등급: 40점
- ② B 등급: 32점
- ③ C 등급: 24점
- ④ D 등급: 16점
- ⑤ E 등급: 8점
- ⑥ F 등급: 0점

[문제 3]

- ① A 등급: 20점
- ② B 등급: 16점
- ③ C 등급: 12점
- ④ D 등급: 8점
- ⑤ E 등급: 4점
- ⑥ F 등급: 0점

논술문제 해설지 (언어형)

■ 문항별 세부 채점지침과 채점등급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4>는 기후위기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 채점지침 】

[문제 1]은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하여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한 다음, 각 입장의 논지를 서술하라는 문제이다.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중심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친환경 기술 개발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녹색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기술낙관론적 입장’과 ‘기술 개발로는 기후위기 및 기후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고 탈성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기술비관론적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에 속한 제시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을 해당 제시문들의 주장을 포괄하여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시문 각각의 내용을 요약했다더라도 이를 종합하여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제시문의 난이도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지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정확한 분류 및 요약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문제 1]의 <제시문 1>과 <제시문 4>는 친환경 기술과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기술낙관론을 피력하고 있다. 반면 <제시문 2>와 <제시문 3>은 기술만능주의와 성장중심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기술 개발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기후불평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해당 주제는 전 세계적 기후위기, 과학기술과 문명, 경제성장과 탈성장, 불평등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친숙한 내용이므로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시문을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입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제시문의 논지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1>과 <제시문 4>는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수단으로 기술 발전과 녹색성장을 강조하며 기술낙관론적 관점을 공유한다. 그러나 그 접근의 출발점, 초점, 전개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제시문 1>은 녹색성장 개념의 기원과 철학을 중심으로 기술낙관론을 전개한다. 녹색성장은 단순한 환경 보호가 아니라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으로, 특히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번영을 추구한다. 이 개념은 개발도상국도 산업화의 부산물인 환경오염 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내포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이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녹색성장은 빈곤 해소와 고용 창출,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는 포괄적 이상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기술을 통해 인간

논술문제 해설지 (언어형)

의 삶 전반을 개선할 수 있다는 도덕적 낙관주의를 함께 담고 있다. 반면 <제시문 4>는 긴박한 위기의식에서 기술의 역할을 강조한다. 파리기후협약과 IPCC 보고서를 근거로 기후위기의 현실과 그 심각성을 강조한 후, 이를 돌파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기술혁신을 부각하고 있다. 특히 기존 기술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이상기후 적응을 위한 첨단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임을 역설한다. 이 제시문에서 기술은 단지 성장을 견인하는 수단을 넘어서, 인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대응수단으로 등장한다. 동시에 기술-인재-산업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혁신생태계 조성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요컨대 두 제시문은 모두 과학기술이 기후위기 해결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술낙관론을 공유한다. 그러나 <제시문 1>이 개념의 정당성과 희망적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윤리적 낙관론인 반면, <제시문 4>는 현실적 위기 대응과 과학기술 중심의 실행 전략을 강조하는 실천적·기술중심 낙관론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녹색성장의 철학적 기반과 사회적 가치를 조명하는 데 방점을 두며, 후자는 기술 구체성과 실행 로드맵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관점을 형성하고 있다.

<제시문 2>와 <제시문 3>은 친환경 기술이나 녹색성장에 대한 기술낙관론을 비판하면서, 성장 지상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통해 탈성장과 기후 정의를 강조하는 기술비관론의 입장을 공유한다. 이 제시문들은 특히 친환경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기후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한 기술적 해결책이 아닌 사회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주장한다. <제시문 2>는 노자의 철학을 인용하며 인간의 기술에 대한 맹신과 인위적 개입이 초래하는 한계를 지적하는 데서 출발한다. 노자는 기술로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는 시도가 궁극적으로 실패로 귀결된다고 경고하며, 인간의 삶은 자연과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상은 현대 탈성장론과 연결된다. <제시문 2>는 녹색성장조차 결국 기존의 성장 담론에 기반한 것이며, 환경과 자원의 유한성, 경제적 양극화, 기후 재앙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의 지속은 환상이며 오히려 소비의 절제와 탈물질화, 성장 이외의 삶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에 비해 <제시문 3>은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기후위기 문제에 접근한다. 이 제시문의 핵심은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연계성에 관한 논의이다.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소수의 부유층은 기후위기에 큰 책임이 있으면서도 그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춘 반면, 다수의 빈곤층은 책임이 적음에도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구조에 대한 윤리적 분노가 중심이다. 기술낙관론은 이러한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기후위기의 책임자들이 기후정책 결정권자로 군림하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 제시문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나 녹색성장론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원인에 대한 구조적 각성, 즉 기득권의 소비 패턴과 경제 체제 전반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두 제시

논술문제 해설지 (언어형)

문은 공통적으로 기술에 대한 회의와 녹색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성장 중심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제시문은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시문 2>는 철학적 성찰과 생태적 자각을 통해 기술중심주의를 비판하고 탈성장을 생태적 필연성으로 제시하는 반면, <제시문 3>은 불평등의 윤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 담론을 비판하고 기후위기 해법의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정치적·사회적 각성을 요구한다. 요컨대 <제시문 2>는 ‘기술로는 생태계의 자정 능력을 대체할 수 없으며, 진정한 지속 가능성은 비성장적 삶에서 비롯된다’는 생태 중심 기술비판론을, <제시문 3>은 ‘기후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계층이 해결의 주체가 되어선 안 되며, 기술은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정의 중심 기술비판론을 전개하고 있다. 두 관점 모두 현 기후위기의 핵심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체제적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탈성장과 정의로운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공통된 결론으로 향한다.

이처럼 각 제시문의 입장 및 중심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입장으로 분류한 제시문들을 하나의 통일된 글로 요약, 정리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논지 정리 과정에서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 사이의 논점 차이까지 고려하여 글을 작성한다면 우수한 답안이라 할 수 있다.

【 채점등급 】

- A :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각 입장에 속하는 제시문들 간의 차이점까지 고려하면서 두 입장의 주요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한 답안
- B :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주요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제시문 간의 차이점을 효과적으로 부각하지 못한 답안
- C : 제시문 분류는 올바르게 하였으며 각 제시문에 대한 요약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이를 종합한 두 입장의 주요 논지가 충실히 기술되지 않은 답안
- D : 제시문 분류는 잘못했으나 두 입장의 주요 논지 서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답안
- E : 제시문 분류에도 실패하고 두 입장의 주요 논지 서술도 충실하지 않은 답안
- F :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논술문제 해설지 (언어형)

[문제 2] 지구의 빙하두께 변화 및 저탄소 에너지기술 성숙도를 보여주는 <자료 1>과 저탄소 에너지기술 투자·성과 지표를 보여주는 <자료 2>, 소득계층별 기후위기 관련 지표를 보여주는 <자료 3>을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시오. (40점)

【 채점지침 】

[문제 2]에서는 제시된 두 자료를 근거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자료를 기후위기에 관한 [문제 1]의 상반된 두 가지 견해에 따라 해석하고 각 자료를 근거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료 1>과 <자료 2>를 해석하고 각 자료의 내용이 [문제 1]에 등장한 상반된 두 입장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추론해야 한다. <자료 1>은 1985년 이후 지구의 빙하두께 변화와 저탄소 에너지기술 성숙도를 하나의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이 자료에서 1985년 이후의 지구 빙하두께가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현재의 생산과 경제성장의 규모를 유지하였을 경우와 50% 감축하였을 경우 각각 빙하두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1985년 이후 빙하두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의 생산 및 경제성장 규모가 유지될 경우 감소추세가 지속됨을 알 수 있다. 반면 현재의 생산 및 경제성장 규모를 50% 감축할 경우 빙하두께는 2040년 정도부터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탄소 에너지기술 성숙도는 1985년 기초단계에서 시작하여 점차 기술의 성숙도가 상승함을 알 수 있으며, 기술성숙도의 단계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은 점점 짧아져 2024년 경 최고 수준의 기술성숙도를 달성하였다. 그래프에 나타난 현상과 예측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탄소 에너지기술이 완성단계에 이른 이후에도 현재의 생산과 경제성장 규모를 유지한다면 빙하두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저탄소 에너지기술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가 지속됨을 알 수 있다.

<자료 2>는 2024년 기준 국가 경제 수준별 에너지기술 투자 및 성과 지표를 보여준다. 이 자료를 통해 선진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의 에너지기술 발전 수준이 다르며, 에너지기술 발전을 통한 탄소 배출 감축과 경제성장의 효과 역시 다르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 수준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적 접근에 격차가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먼저 저탄소 에너지기술에 대한 투자와 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보면, 선진경제국은 정부 연구개발 예산 중 15.7%를 저탄소 에너지기술에 투입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은 0.3%에 불과하여 약 50배에 이르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인구 만 명당 특허출원 건수는 선진경제국이 2.3건, 개발도상국이 0.001건으로 2,000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 수준에 따라 저탄소

논술문제 해설지 (언어형)

에너지기술에 대한 정부의 투자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대비 특허출원 건수는 투자 규모 차이에 비해 더 큰 격차가 보임을 알 수 있다. 저탄소 에너지기술 투자 대비 탄소배출 감축량을 살펴보면, 선진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은 절대적인 투자 규모의 차이뿐만 아니라 에너지기술 투자 대비 탄소배출 감축 효율에서도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저탄소 에너지기술 관련 산업이 GDP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살펴보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저탄소 에너지기술 관련 산업이 GDP 성장에 0.1% 수준인 반면, 선진경제국의 경우 저탄소 에너지기술을 통해 10%의 GDP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탄소감축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선진경제국은 활발한 기술이전 성과를 보이고 개발도상국은 기술이전의 수혜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진경제국은 화석연료 대비 저탄소 에너지 사용비율이 40%에 달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7% 수준으로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선진경제국의 발전된 저탄소 에너지기술이 개발도상국으로 활발하게 이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탄소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지 못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낮은 저탄소 에너지기술 투자 비중과 특허출원 건수를 고려할 때 향후 기후위기에 대응함에 있어 개발도상국이 기술주권을 가지지 못하는 종속적 상태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국가 경제 수준별 기술 수준의 단순한 차이를 넘어 향후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단계에서부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중대한 격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자료 3>은 2024년 기준 소득계층별 기후위기 관련 지표를 보여준다. 전 세계 탄소배출량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각 소득계층에서 배출한 탄소량의 비율을 살펴보면, 소득 상위 20%가 전체 탄소배출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소득 하위 40%는 약 10%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탄소배출 정도에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총 소득손실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소득손실의 비율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소득 하위 40% 계층이 전체 소득손실의 약 75%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상위 20% 계층은 약 5%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의 자산 소유 비율을 살펴보면, 전 세계 자산의 약 75%는 상위 20% 계층이 소유하고 있으며 하위 40%는 약 5%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소득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자산 기반에서도 계층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건강위험에서도 위험에 노출된 인구 중 약 70%가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에 더 취약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문제 1]의 두 입장과 관련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논술문제 해설지 (언어형)

1>에서 1985년 이후 저탄소 에너지기술은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여 2024년경에는 완성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생산과 경제성장의 규모를 감축하지 않는 한 빙하두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통해 기술이 발전되더라도 생산과 성장을 줄이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자료 2>의 저탄소 에너지기술에 관한 지표를 국가 경제 수준별로 살펴보면 저탄소 에너지기술에 대한 투자와 기술창출은 선진경제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술 활용을 통한 탄소배출 감축과 경제성장의 효과는 선진경제국에서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저탄소 에너지기술 발전의 실질적인 효과는 전 세계에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비록 저탄소 에너지기술의 순해외 기술이전 건수를 살펴볼 때 개발도상국으로 저탄소 에너지기술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으며 에너지기술 투자 대비 탄소배출 효율 역시 선진경제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현재 기술 발전의 효과는 전 세계가 고르게 누릴 수 없으며 국가 경제 수준별 구조적 격차가 존재함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 3>에서는 기후위기의 책임과 그로 인한 피해가 개인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제 2]의 <자료 1> ~ <자료 3>은 [문제 1]의 기후위기 관련 현상과 이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상반된 관점을 각각 옹호할 수 있는 근거를 복합적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각 자료에서 기후위기로 인해 나타난 자연적 현상과 사회적 현상,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에너지기술에 관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문제 1]의 상반된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답안의 포인트는 [문제 2]에서 제시된 세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하여 [문제 1]에서 분류한 두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일관된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제시문 1>은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번영을 제시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의 발전이 또 다른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결과적으로 기술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적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한다. <제시문 4>는 현재의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첨단기술의 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한다. 두 제시문은 모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기술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학생들은 [문제 2]의 자료에서 저탄소 에너지기술이 최근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는 점, 선진경제국의 저탄소 에너지기술에 대한 투자와 특히 개발 성과, 그리고 에너지기술을 활용한 탄소배출 감축과 경제성장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문 1>과 <제시문 4>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다. 반면 [문제 1]의 <제시문 2>는 기술에 대한 맹신을 경계하며 기술혁신을 통해 녹색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학생들은 기술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의 근거를 <자료 1>을 활용하여 제시하고, <제시문 2>에서 환경과 자원의 유한성을 고려할 때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탈성장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제시

논술문제 해설지 (언어형)

문 3>에서는 부유한 소수가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나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자원까지 갖추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빈곤층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주장은 <자료 3>에서 소득계층에 따라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탄소배출의 책임이 더 많은 자원을 가진 고소득층에 집중된 반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지지될 수 있다. 탄소배출 기여도가 높은 소수의 부유층이 그들의 과도한 소비를 절제하지 않은 채 기술 개발과 이를 통한 산업의 발전에만 힘을 쏟는 동안, 자원이 부족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다수는 기후문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건강 위협에 더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자료 2>에서 선진경제국은 발전된 기술을 통해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으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낙관론의 입장이 옹호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과 선진경제국의 기술 격차를 살펴볼 때, 녹색성장이 결국에는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제시문 2)과 기후위기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제시문 3)을 기술비관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선진경제국의 기술에 종속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가 고착화될 것임을 함께 지적할 수 있다.

[문제 2]에서는 [문제 1]의 제시문 문구를 단순 반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문제 2]의 세 자료를 [문제 1]의 두 입장과 효과적으로 연결해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자료 2>로부터 선진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의 지표를 각각 기술낙관론과 기술비관론에 단순 연결하여 지지하는 논리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문제 1]의 상반된 두 입장과 각 제시문의 주요 논점 차이를 각 자료와 논리적으로 연결하며 각 입장을 옹호하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우수한 답안이라 할 수 있다.

【 채점등급 】

- A : 자료를 모두 정확하게 해석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한 답안
- B : 자료를 모두 정확하게 해석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서술하였으나 부분적으로 서술의 적절성이나 충분성이 부족한 답안
- C : 자료를 모두 정확하게 해석했으나 자료의 내용과 [문제 1]의 제시문 내용을 단순 반복하는 수준에 그친 답안
- D : 자료의 일부만 정확하게 해석했거나,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잘못 연결 지었거나,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만 옹호한 불충분한 답안
- E : 자료를 모두 부정확하게 해석했고 [문제 1]의 두 입장을 옹호하는 논리가 부적절한 답안
- F :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논술문제 해설지 (언어형)

[문제 3] 아래 제시된 정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본인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점)

세계 190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에서 탄소중립 기술의 발전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논의 중이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각 국가가 탄소배출량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지불하고, 이를 탄소중립 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 채점지침 】

[문제 3]은 세계 각 국가의 탄소배출량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부과하고 이 분담금을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중 오직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선택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 1]의 제시문들은 기후위기 극복과 관련된 상반된 두 가지 입장, 즉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기술낙관론적 입장(제시문 1, 4)과, ‘기후위기 극복에 있어 기술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탈성장과 기후 정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제시문 2, 3)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 2]의 <자료 1>은 설령 저탄소 에너지기술이 완성 단계에 이르더라도 현재의 생산과 경제성장 규모가 유지될 경우 빙하두께의 감소로 대변되는 기후위기가 해소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자료 2>는 한편으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저탄소 에너지기술 개발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고 저탄소 에너지기술 관련 산업이 GDP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서, 탄소감축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이 자료는 애초부터 국가 경제 수준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역량에 큰 차이가 있어서 선진국의 발전된 기술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더라도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산업체제가 저탄소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움을 시사한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함에 있어 궁국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은 기술주권을 갖지 못하는 종속적 상태에 머무를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자료 3>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는 개인의 역량과 자산 기반에 있어서도 소득 계층 간 격차가 크다는 점을 통해 개인 수준에서 기술낙관론의 한계를 추가로 지적하고 있다.

학생들은 [문제 1]의 제시문들과 [문제 2]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발문에 제시된 정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3]의 답안을 작성함에 있

논술문제 해설지 (언어형)

어, 학생들은 먼저 해당 정책이 첨단기술 개발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라는 점을 추론하고, [문제 1]에 등장한 기술낙관론과 기술비관론의 입장에서 이 정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논리를 효과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 정책에 찬성하는 경우, 학생들은 [문제 1]의 <제시문 1>, <제시문 4>, 그리고 [문제 2]의 <자료 2>에 제시된 유관 지표들을 활용하여 첨단기술 개발과 녹색성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음을 피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제시문들의 주요 논지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이 기후위기 해결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기술낙관론적 관점에서 탄소중립 기술을 전 세계적 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국가의 탄소배출량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므로, 기후위기에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이 정책이 기여하는 바가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

반면에, 이 정책에 반대하는 경우 학생들은 [문제 1]의 <제시문 2>, <제시문 3>, [문제 2]의 <자료 1>, <자료 2>의 유관 지표, 그리고 <자료 3>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첨단 탄소중립 기술이 발전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생산과 성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더라도 탈성장 정책을 채택하지 않으면 기후위기가 계속 심화할 것임을 제시하고, 기후 불평등을 보여주는 유관 지표들을 토대로 첨단기술의 실질적 효과가 전 세계에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책을 통해서 첨단기술 개발이 촉진되더라도 그러한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 등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이미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려움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근거로, 탄소중립 기술을 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은 결국 또 다른 성장 만능주의에 불과하다는 점을 피력할 수 있다.

[문제 3]의 핵심은 해당 정책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기술낙관론과 기술비관론의 주요 논지를 [문제 1]의 제시문으로부터 정확하게 도출하고, 이 두 가지 입장을 각각 옹호하거나 반박하는 자료가 복합적으로 제시된 [문제 2]의 자료로부터 기후위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현상을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적 구성을 토대로 자신의 입장과 판단의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좋은 답안의 포인트이다. [문제 3]은 학생들이 특정 현상과 관련된 상반된 주장의 핵심 논리와 관련 자료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현실 문

논술문제 해설지 (언어형)

제 해결에 적용하여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따라서, 자신의 선택과 일치하는 제시문과 자료를 활용하는 데 그친 답안은 좋은 답안으로 평가받기 어렵다.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제시문과 자료의 핵심을 포착하여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논술한다면 문제의 조건에도 부합하고 풍부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채점등급 】

- A : 해당 정책(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고,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신의 선택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한 답안
- B : 해당 정책(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를 단편적으로 연결하는 데 그치고 주장의 체계성과 논리성이 다소 미흡한 답안
- C : 해당 정책(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단순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
- D : 해당 정책(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제시문과 자료를 잘못 연결하여 주장의 설득력이 낮고 논리적이지 않은 답안
- E : 해당 정책(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지 않고,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제시한 답안
- F :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